

# '불교' 황권 아래 복속... 흥망성쇠 황제 손에

## 중국불교의 거사들 <6>

### 북조(北朝) 황제들의 봉불(奉佛)과 폐불(廢佛)

동진16국 시대를 거치며 불교는 통치사상의 기능과 함께 문화를 이끄는 주요한 사조(思潮)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남북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남조(南朝)는 동진이 망한 후 420년부터 589년까지 장강유역에 한족(漢族)이 세운 송(宋), 제(齊), 양(梁), 진(陳) 네 나라를 가리킨다. 북조(北朝)는 420년부터 수(隋)가 전국을 통일한 589년까지 선비족이 세운 북위(北魏)로부터 동위·서위·북제(北齊)·북주(北周)를 말한다. 이 시기에 남조는 동진으로부터 이어진 현학과 불교학이 결합된 형태를 유지해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불교를 만들어 갔다. 또한 북조도 오호(五胡: 匈奴, 羯, 鮮卑, 氏, 羌) 16국 정체를 이어받아 불교를 신봉하는데 주력한다.

북조의 불교가 어느 정도 흥성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와 양현지(楊街之)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가 있다. 그

들의 지도자였던 법과(法果) 스님은 "태초는 밝고 뛰어나 불도(佛道)를 좋아하시니, 곧 지금의 여래(如來)와 같다. 따라서 마땅히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말해 황제를 부처님의 화신으로 대대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북위가 439년 북방을 통일하고 '승관(僧官)제도'를 확립시키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불교가 철저히 황권 아래 복속된 것이다. 남북조시기에 황권에 의한 두 차례의 법난이 모두 북조에서 발생했던 것은 이런 정교관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북위의 도무제(道武帝)를 비롯한 명원제(明元帝), 효문제(孝文帝)와 선무제(宣武帝) 등 역대의 황제들은 모두 정치적 필요와 개인적 신앙으로 불교를 중시해 거대한 불사(佛事)를 일으킨다. 하지만 명원제의 아들인 태무제(제위 423-451)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도 즉위 초에는 불교를 신앙했지



그림·김홍인

### 태무제·무제 때 일어난 법난으로 폐불 위기 겪어 다양한 법회·강설 개최로 비담·지론 등 교학 발전

에 따르면, 북위 말년에 사찰이 3만여 개에 이르고, 승려들이 200여만이며, 낙양 성내에만 1300여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북위의 태무제(太武帝)와 북주의 무제(武帝)를 제외하고는 북조의 모든 황제들이 독립하게 불불(佛)한 결과였다.

남북조가 모두 불교를 신봉했지만, 교단과 정권과의 관계는 남조와 북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측면을 보였다.

남북조의 불교와 정권의 관계는 '출가사문이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남조에서는 동진 시기에 불교를 대표하는 여산 해원 스님의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에서 보인 것처럼 출가사문은 유가의 강상명교(綱常名教)와는 달라서 속세의 국왕과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철저히 왕(王)의 지도(治道)를 돕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 완벽한 정교(政敎)분리를 유지했다. 이는 황제들이 철저히 불교에 귀의하는 남조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북조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에 따르면, 당시 북방 스님

만, 효문제·선무제·태무제에 이르는 3조(朝)의 신하 최호(崔浩)와 그의 결탁한 도사 구경지(寇謙之)의 영향으로 점차 도교를 신앙하게 됐다. 그에 따라 태무제 시광(始光) 원년(424) 북위 수도 평성(平城)에 도관(道觀)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태연(太延) 4년(438), 태무제는 최호와 구경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50세 이하의 모든 사문은 환속하라는 조칙도 내렸다.

440년에 이르러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하려는 의도에서 '태평진군(太平眞君)'으로 개원(改元)했다. 태평진군 5년(444), 태무제는 왕공(王公) 이하 일반 서민들에게 사문에 게 공양을 금지시키는 조칙을 내리고, 당시 승가의 지도자인 현고(玄高), 혜승(慧崇) 등의 스님들을 살해했다. 태평진군 7년(446), 관중지방에서 개오(蓋吳)의 반란이 일어나자 태무제는 천하 정벌에 나섰다. 장안의 사찰에서 병장기를 숨긴 것을 발견하고, 태무제는 모든 불상과 도형 및 경전을 남김없이 불사하고, 승려를 모두 물어버리라고 명했다. 그 결과를 혜교(惠敎)의 <고승전>은 '북위에는 단 한명의 스님도 없었다'

고 적었다.

태무제에 의한 법난으로 북위 불교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지만, 문성제의 노력에 의하여 빠르게 회복됐다. 결과적으로 북조의 불교는 태무제 이전보다 더욱 발전했다.

북위 말년에 정치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위·서위의 양국으로 분열되는 등 북조의 정치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됐다. 서위를 이은 북주(北周)의 무제(武帝)에 이르러 불교는 다시 폐불 상황을 맞게 됐다. 무제는 즉위 초 불교를 신앙했지만, 이후 유가(儒家)를 중시했다. 당시 불교 사원과 스님의 수가

날로 증가해 국고 수입이 점차 감소했고 국가경제가 위기를 받았다. 그때 환속한 위원승(衛元嵩)은 나라를 다스림에 불교는 적합하지 않으니 사원과 스님의 수를 감하라는 상조를 올렸다. 무제는 불교 탄압을 위한 여론 조성을 하고자 천화(天和)에서 건덕(建德)년간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문무백관과 스님, 도사를 소집해 유불도(儒佛道) 삼교의 선후를 논했다.

그러나 유불도 삼교의 선후를 논한 자리에서 매년 불교는 도교와의 논쟁에서 이겼다. 결국 불미를 찾을 수 없었던 무제는 건덕 3년(574) 5월, 불·도 양교

를 금지하고, 경전과 불상을 모두 없애며, 스님과 도사를 모두 환속시키고, 사원과 도관의 재산을 몰수해 왕공(王公)에게 하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6월 무제는 '통도관(通道觀)'을 설치해 불교와 도교의 명사 120명을 선발해 '통도관학사(通道觀學士)'라고 칭해 불교와 도교의 명맥만을 남겼다. 건덕 6년(577), 북제(北齊)를 멸해 다시 북방을 통일한 무제는 북제의 영토에도 불교를 금지하는 조칙을 내렸다. 조칙에 따라 북방의 수많은 사원들이 훼손되고, 많은 수의 스님들이 남방으로 피신했다.

무제에 의한 법난은 표면적으로는 유가를 중시하고 불·도 양교를 폐한 것이지만, 사실상의 원인은 3만여 곳이 넘는 북주 사찰과 200만에 이른 승려 인구가 전인구의 1/16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불교세가 커진 것에 있었다.

북조의 태무제와 무제에 의한 법난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가 황권에 예속돼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조 역시 끊임없이 유·불·도의 삼교가 치열하게 쟁론을 벌이고, 사원과 스님의 규모도 북조와 비슷해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였지만 북조에서와 같은 법난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제가 폐불을 단행하면서 '제왕(帝王)은 여태이고, 왕공(王公)은 바로 보살'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교를 폐하여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은 그를 반증하는 것이다.

후대에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으로 칭해지는 법난 가운데 다른 2개의 법난 역시 북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당말 무종(武宗)에 의해 회창(會昌)연간에 발생한 법난과 오대(五代)의 난세에 다시 북방의 후주(後周) 세종(世宗)에 의해 일어났던 법난이 그것이다. 이러한 '삼무일종'의 법난이 모두 북방을 중심으로 발생해, 북방 불교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중국불교의 주도권은 남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그것은 후대의 일이고, 북조 불교는 태무제와 무제를 제외한 모든 황제가 불교에 귀의함에 따라 문무백관도 모두 불교에 귀의했고, 다양한 거사불교가 나타났다. 그러나 북조 불교는 모두 관방에 소속돼 남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거사는 아주 드물다. 북조 불교는 황권에 예속되어 모든 불사를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다.

북조 불교에서 평가해줄 수 있는 점은 낙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회를 열고 강설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위 효문제(孝文帝)는 승려들의 안거(安居)와 불전 강설을 매우 좋아했으며, 북위의 여러 황제 가운데 강경(講經) 법회와 안거를 행하게 한 사람은 효문제(孝文帝)가 최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안과 낙양에서는 비담(毘曇), 지론(地論), 삼론(三論), 성실(成實), 열반(涅槃), 삼론(三論) 등의 교학이 상당히 발전했고, 이후 천태종, 유식종, 화엄종, 율종, 정토종, 선종 등의 종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곁고 북산에 첫눈에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 4월 6일 서울 법문은 선원의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무득이 5월 4일(토)로 연기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영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영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얏고 무자한 한 해도 불보살님의 기도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보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발걸음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실리콘·동 99% 함유 특허 10-0806337호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지압·동 깔창

가격 15,000원  
 \*사이즈: 230-280

▶ 본사·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중각역 2번출구 100미터  
 ▶ 문의·주문: (02)733-5715 011-9000-5715  
 ▶ 계좌: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박해운) 합정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다들 카레가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                       |                         |  |
|-----------------------|-------------------------|--|
| 원주생식<br>2개월분 80,000원  | 원주발아생식<br>2개월분 80,000원  | 원주찬생식<br>2개월분 90,000원                            |
| 원주흑생식<br>2개월분 90,000원 | 히말라야 석청<br>1kg 500,000원 | 원주잔류<br>▶ 원주생식(정량) 25,000원<br>▶ 원주생식(정량) 20,000원 |

무상사 소비자상담실 (053)958-5921 우체국 703331-01-001873 (예금주: 무상사)

### 因緣·絶緣 公告

긴 세월을 지나온 동안 本人을 스승이라고 因緣을 맺은 恩·法 스승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本人이 不德하여 여러분들의 傳法度生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修行에 障礙될까 염려스러운바 格別한 因緣, 小數를 除外한 모두를 絶緣함을 이에 公告합니다.

佛紀 2552년 3월 13日字

大韓佛敎 總和宗 總務院長 玄翁 全南亭